

## 미·중 전략경쟁과 신남방정책

김영선

(前인도네시아대사  
前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 요 약

신남방정책은 신남방국가들로부터 높은 평가와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주요국가들이 협력을 희망하는 등 한국의 주요 외교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신남방정책이 차기정부에서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신남방정책이 출범한 2017년과 작금의 정책 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심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strategic competition)은 신남방정책에 어려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오늘날 인도태평양(Indo-Pacific)이라는 지역개념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고 미국 등 주요국가 대부분이 인도태평양 전략/구상을 천명하고 있는데 반해,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인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역전략으로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남방의 지리적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지역의 주요국가로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한국의 독자적인 전략/구상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남방정책과 미국, 호주 등 주요국들의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계·협력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진전이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할 점은 신남방정책의 정체성(identity) 문제이다. 신남방정책은 강대국외교에서 탈피하여 외교 및 경제 다변화를 통해 우리의 외교지평을 넓히고 전략적 자율의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따라서 신남방정책의 나아갈 방향은 중견국외교로서의 비전과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이란 국제정치의 새로운 지역개념을 받아들이면서 포용적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 비전과 전략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국가들과 다층적인 전략대화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아세안을 비롯, 전략적 이해를 같이하는 유사입장(like-minded) 국가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 미·중 전략경쟁과 신남방정책

김영선

(前인도네시아대사 前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천명한 신남방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내외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 중 가장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대외정책이란 계속성(continuity)과 일관성(consistency)을 가질 때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 동시에 정책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민하게 수용하여 정책을 재조정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한국의 정부 교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간 추진되어 왔던 신남방정책에 대해 점검해 보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 하겠다.

우선 신남방정책은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과거의 정책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범정부적으로 적극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이 과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가져왔는지를 평가해 봐야할 것이다. 그런 바탕 위에서, 신남방정책이 차기정부에서도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이란 정책을 둘러싼 제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변화추세를 주도해 갈 때 타당성(relevance)을 갖는다. 신남방정책이 출범한 2017년과 작금의 정책 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2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언제 수그러들지 예측키 어렵고, 그로 인한 세계화의 후퇴, 자국중심주의 및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등은 국제협력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strategic competition)이 격화되고 있어,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는 불안정성과 불가측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남방정책도 이러한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첨예화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제를 야기하며, 그러한 배경 속에서 신남방정책은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야 할 지 한-아세안 관계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

신남방정책이 2017년 수립되기 전까지 한국은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에 대한 독립적인 외교정책이나 전략이 부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아세안은 한국에게 왜 중요한가,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은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아세안의 전략적 위치이다. 아세안은 아시아·태평양 및 인도양의 중심에 위치하여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및 오세아니아의 거대 정치·경제권과 연계되어 있다.

둘째, 6억 7천만 명의 젊고 역동적인 인구와 GDP 3조 천억 달러의 경제규모를 가진 아세안은 글로벌 경제성장을 이끌 다대한 포텐셜을 갖고 있다.

셋째, 정치안보·경제·사회문화적 통합을 지향하는 아세안공동체가 2015년 말 출범함으로써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넷째, 아세안이 지역 협력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 원칙과 아세안 중심의 지역협의 메커니즘(아세안+1, 아세안+3, EAS, ADMM Plus, ARF)을 모든 국가들이 지지하고 있어, 새로운 지역 질서 논의에 있어 아세안의 입장과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 신남방정책의 배경과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 직후 대통령특사를 역사상 최초로 아세안국가에도 파견하고,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한반도 4강 국가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배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는 한국의 대외정책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첫째, 아세안 공동체 출범 등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둘째, 한반도 4강 외교에 중심을 두어 왔던 한국은 외교 및 경제 다변화를 통해 강대국간 경쟁구도 속에서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특히 경제적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던 중국과 2016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포스트 차이나'로서 아세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셋째, 아세안과 교류와 협력이 크게 증진되고 있음에도 독립적인 대아세안정책을 갖고 있지 못했던 한국은 한-아세안 협력관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한국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주로 추구하며 자기중심적이라는 일부 지적이 있어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아세안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 중심의 상생 번영과 지역 평화를 추구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게 됐다.

## 신남방정책의 성과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통해 직접 추동하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범정부적 노력에 의해 강력 추진됐다.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정책의 후퇴 없이 오히려 새로운 정책 환경에 대응하여 정책을 업그레이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2020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시 제시했다. 아세안측은 이러한 한국 측의 결의와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특기할 점은 2019년 11월 부산에서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비전성명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목표가 아세안이 추구하는 아세안공동체의 지향점과 같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것이다.<sup>1</sup> 이로써 신남방정책 추진의 모멘텀이 강화됐다. 또한 2021년 10월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아세안의 전략 및 이니셔티브를 연계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한-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7개 핵심사업(Initiatives)과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관점'(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AOIP) 및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의 중점 사업들 간 긴밀한 협력과 시너지를 도모해 나가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sup>2</sup> 이는 한국과 아세안이 코로나19 팬데믹 등 불확실한 국제정세 하에서 서로를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윈-윈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이로 인한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아세안 관계는 여러 분야에서 협력의 모멘텀을 착실히 발전시켜왔다. 한 예로, 2016년 1,188억 달러였던 교역액이 2021년에는 1,76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sup>3</sup> 이는 2016년 대비 48.7% 증가한 것이며, 우리 전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2%에서 14%로 상승했다. 또한 최근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아울러 한-캄보디아 FTA 및 한-필리핀 FTA가 발효되면 신남방정책의 경제협력 다변화 전략이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 신남방정책의 도전과제 - 미·중 전략경쟁

한편, 오늘날 국제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 신남방정책에 어려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높이 평가하면서 자신의 지역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 및 일대일로 정책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두 나라 중 어느 한 쪽으로 기울 수만은 없어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미·중 전략경쟁은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를 배경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이자 현 국제질서의 도전자(revisionist)로 규정하면서 본격화됐다.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 확대와 남중국해 등에서의 공

1 ASEAN-ROK Joint Vision Statement for Peace, Prosperity and Partnership(26 November 2019)

2 Joint Statement of the 22<sup>nd</sup> ASEAN-ROK Summit on Advancing ASEAN-ROK Cooperation for People-centered Community of Peace and Prosperity(26 October 2021)

3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세적인 행동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며 전략공간을 인도양까지 확대하고 군사, 안보뿐 아니라 무역, 관세 이슈 및 5G 등 첨단기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압박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미·중 갈등과 대립을 더욱 악화시켰다.

2021.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외교와 국제적 리더십 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대중 정책은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배경으로 중국 견제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 잠정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에서 중국을 기존 국제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the only competitor)로 규정하고, 특히 첨단기술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희토류 등 핵심광물 및 의약품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성하고자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도 중시하고 있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협력틀이 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블링컨 국무장관의 2021년 12월 인도네시아 방문 시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5개의 핵심적 목표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sup>4</sup>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등 동맹국 및 파트너국가와 긴밀히 연대하여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정책이 중국을 배제한다든가 견제하게 될 경우, 한국으로서는 다른 한편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을 최초 제기한 것은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였다. 당시 한국은 '조화로운 협력'을 해 나간다는 유보적인 입장으로 대응했으나, 2019년 11월 협력방안에 대한 협의가 시작되어, 수차례의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2021년 5월 문재인 대통령 방미 시에는 신남방정책과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을 연계해서 여러 분야에서 긴밀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sup>5</sup> 이에 대한 후속으로 제1차 한미 동남아·태평양 정책대화(차관보급)가 개최되어, 한미 간 포괄적 파트너십의 협력범위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구체사업을 통해 양국의 지역정책 간 연계·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호주와는 2021년 2월 국장급 협의를 개시되어, 2021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방문 시 호주의 인도태평양 정책과 신남방정책간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했다.<sup>6</sup> 또한 2021년 5월 개최된 한-EU 외교장관회담에서 신남방정책과 유럽의 인도태평양 지역 중시 전략간 호혜적 협력을 모색키로 했으며, 2021년 7월 개최된 한-프랑스 아세안 정책대화(국장급)에서 신남방정책과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간 정책 조율과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4 Antony J. Blinken, A Free and Open Indo-Pacific, Speech delivered at the Universitas Indonesia, Indonesia

5 US-ROK Leaders' Joint Statement(21 May 2021)

6 Australia-ROK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Joint Statement(13 December 2021)

이와 같이, 오늘날 지역정세를 논할 때 아시아·태평양 또는 동아시아보다 더 넓은 범위의 인도태평양(Indo-Pacific)이라는 지역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뿐 아니라 아세안과 EU 및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이 인도태평양 전략 또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인도태평양이란 개념이 미국 주도의 중국견제 전략이란 의구심을 떨치지 않고 있는 중국도 최근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관점'(AOIP)을 공식문서에 수용한 것은 인도태평양이란 지역개념을 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7</sup>

한편, 한국은 주요 국가들과 지역정세를 논하던가 신남방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전략/구상과의 협력문제를 협의할 경우, 신남방정책이 아세안과 인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지역 전략 또는 구상으로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신남방정책의 대상지역이 아세안과 인도에 국한되는데 대해 일부 남아시아국가들과 호주 등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신남방의 지리적 범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 신남방정책의 발전방향

신남방정책은 신남방국가들로부터 높은 평가와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주요 국가들이 협력을 희망하는 등 한국의 주요 외교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신남방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나, 신남방의 지리적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지역의 주요국가로서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한국의 독자적인 전략/구상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신남방정책의 지리적 범위와 관련해서는, 1)기존방식대로 아세안 및 인도에 국한 2)신남방의 지리적 범위를 아세안과 인도를 넘어 여타 남아시아국가(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로 확대하거나, 여기에 호주, 뉴질랜드까지 포함하되<sup>8</sup>, 아세안, 인도 및 호주를 핵심 파트너로 분류 3)신남방의 표현을 쓰지 않고 주요 지역 및 국가(아세안, 남아시아, 오세아니아)를 대상으로 하되 아세안, 인도 및 호주를 핵심 파트너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역전략/구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1)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의 독자적인 별도의 '인도태평양 비전 또는 구상(가칭)'을 천명<sup>9</sup> 2)인도태평양지역을 아우르는 우리의 독자적인 지역 전략/구상을 천명하고, 그 틀에서 신남방정책 또는 주요 지역 및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7 Joint Statement of ASEAN-China Special Summit to Commemorate the 30<sup>th</sup> Anniversary of ASEAN-China Dialogue Relations(22 November 2021)

8 대만의 신남향정책(New Southbound Policy)은 아세안, 남아시아 및 호주, 뉴질랜드 등 18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9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추진 중인 인도 모디 총리는 2018. 6.1 상그릴라 다이얼로그에서 '인도태평양 비전'(India's Vision for the Indo-Pacific Region)을 제시하고 2019.11.4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Indo-Pacific Oceans' Initiative를 발표함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신남방정책의 정체성(identity)의 문제이다. 신남방정책은 강대국외교에서 탈피하여 외교 및 경제 다변화를 통해 우리의 외교지평을 넓히고 전략적 자율의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최근 미국, 호주 등 주요국들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과의 협력 논의가 아세안과의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인도태평양 협력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원래의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지향점에서 빗나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신남방정책의 나아갈 방향은 중견국외교로서의 비전과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이란 국제정치의 새로운 지역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어느 한 쪽 편에 기울지 않는 포용적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 비전과 전략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한편, 신남방정책이 한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 및 국가이익에 근거하여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가능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좋으나, 신남방정책이 어느 특정 국가의 정책 이행 수단으로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한 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과 다층적인 전략대화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세안을 비롯, 전략적 이해를 같이하는 유사입장(like-minded) 국가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일본, 중국과도 대화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또한,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관점'(AOIP)은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전략적 딜레마에 처할 수 있는 아세안이 추구하는 인도태평양 신질서의 핵심 원칙과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모든 국가들이 아세안중심성(ASEAN Centrality) 및 아세안 AOIP와의 협력을 지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신남방정책이 아세안 AOIP와 보다 구체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sup>10</sup>

10 2021.11.10 한-아세안간 최초로 개최된 국방장관 회의에서 한국 측은 아세안중심성(ASEAN Centrality)에 입각하고 ADMM Plus에 기반을 둔 한-아세안 국방협력 11개 방안(해양협력, 사이버안보 등)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중국도 2021.11.22 개최된 중-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아세안중심성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AOIP 협력을 증진키로 합의함

## 참고문헌

- Kim, Young-sun. 2021. "The New Southern Policy Plus and ASEAN-Korea Relations". in *The New Southern Policy Plus and Way Forward*. Sejong: KIEP.
- 최원기. 2022. 『한국의 인도태평양 지역협력 추진방향』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이재현. 2022.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 이재현 외. 2019. 『쿼드 국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대응』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 최원기 외. 2021. 『미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연계협력 추진방향』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아세안인도연구센터.
- 김흥규 외. 2021. 『미국 바이든 행정부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선택 연구』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필자소개

김영선 대사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게이오대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김영선 대사는 1977년 외무고시 11회로 외교부에 입부하였으며, 외교통상부 북미2과장, 주이스라엘 대사관, 주이집트 대사관, 주일본대사관참사관을 지냈다. 이후 주레바논 대사, 주일본 공사, 외교부장관특별보좌관, 외교부 대변인, 주인도네시아 대사, 그리고 한-아세안센터 제3대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였다. 김영선 대사는 현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한-아세안 관계 및 동남아시아 정치를 연구하고 있다.





## 연구원 소개

<아세안연구원>은 1997년 아시아지역연구소로 출범하였으며, 이후 동남아시아연구소(2007~2021), 동남아지역원(2010~2019)이란 연구소명으로 활동하다가 아세안공동체의 출범과 한-아세안 관계 심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2019년에 현재의 연구소명을 변경하였다. <아세안연구원>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축적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총체적 단위로서의 동남아시아의 인식과 구성」이라는 아젠다를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HK) 지원사업 해외지역연구에 선정되어 총 10년간(2009.09~2019.08)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했다. 현재는 2021년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전략적지역연구형)에 선정되어 향후 6년간 「아세안 소지역(subregion) 연계를 통한 신남방정책 고도화 전략 연구」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강대국 간의 경쟁 심화와 제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아세안을 향한 한국 정부의 새로운 전략적 접근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아세안연구원>은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년에 두 번 SCOPUS 등재 국제영문학술지(SUANNABHUMI)를 발행하고 있다. 또한 대학원 과정(동남아시아학 석사 및 박사)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중확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 발행일자

2022년 4월 6일

## 발행처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세안연구원

주소: (46234)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485번길 65 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센터 A504호

이메일: [iseas2@bufs.ac.kr](mailto:iseas2@bufs.ac.kr), [kiasbufs1990@gmail.com](mailto:kiasbufs1990@gmail.com)

홈페이지: <https://iseas.bufs.ac.kr/>

전화: 051-509-5670(+82-51-509-5670)

팩스: 051-509-6649(+82-51-509-6649)

본 이슈페이퍼는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이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지원 사업(NRF-2021S1A5C2A01087076) 지원을 받아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연구원 이슈페이퍼를 이메일로 받아보실 분들은 아세안연구원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